

“반전의 시즌 뚝뚝...다시 경쟁 준비해야죠”

KIA 타이거즈 임시 주장 맡은 나지완

수비까지 풀타임 소화, 가장 큰 점수 득한 연습 윌리엄스 감독 테스트 통과 후배들 이끌고 좋은 성적 내고 싶어

산전수전 겪은 13년 차,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도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된 타석이었다.

숨 가쁘게 2020시즌을 완주한 KIA 타이거즈 나지완의 붉은 ‘벨립’이었다.

나지완은 “돌아보면 기적 같은 시즌이다. 초반 10경기 때 정말 긴장 많이 했다. 손이 떨리기도 했다”고 시즌 초반을 돌아봤다.

나지완은 스프링캠프 첫 경기부터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첫 외국인 감독 체제, 원점에서 시작된 경쟁은 나지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시즌 56경기에 나와 0.186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해를 보냈던 만큼 나지완은 절박한 심정으로 칼을 갈았다.

좌익수로 캠프, 연습경기 일정 등을 소화했던 나지완은 조금씩 지난해 악몽을 지워갔다.

나지완은 “초반에 땀이 보여줘야 한다. 그런 부담감은 없었는데 작년 부진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며 “선뜻 방망이도 안 나왔다. 초반 10경기는 긴장감 속에서 치렀다”고 이야기했다.

자존심을 구겼던 지난해, 올해도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다.

나지완은 “개막전까지 4번을 치다가 개막날 7번 타자였다. 그날 안타를 못 치고 다음날 스타팅에서 빠졌다.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뛰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독하게 나지완을 테스트했다. 지명타자가 익숙했던 나지완은 수비까지 소화하면서 시즌을 달렸다. 시즌 막판 체력저하로 슬럼프도 겪었지만, 시즌 완주를 하며 윌리엄스 감독의 특한 테스트를 통과했다.

나지완 스스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도 ‘완주’다.

나지완은 “거의 10년 만에 수비까지 풀타임 소화를 했다. 아픈 곳도 있었지만 참고했다. 그만큼 절실했다”며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도 세우고, 극적인 순간에 안타·홈런도 몇 차례 기록했지만 개인 성적보다는 1년 내내 풀로 뛰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나 자신이 기록하다”고 웃었다.

반전에 성공했지만, 나지완의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다시 또 새로운 경쟁 출발선에 서야 하고, ‘임시 주장’이라는 책임감이 있다.

그는 선수단 투표를 통해 양현종을 대신할 주장 역할을 맡았다.

나지완은 “선수단이 뽑아준 것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만큼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잘해야 하는 자리다”며 “다시 경쟁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야구 하면서 경쟁 안 한 적이 없다.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금 내 기량보다 더 잘하는 후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후배들이 나와야 우리 팀의 방향성도 정해진다”며 “고기도 먹어본 애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후배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고기를 잘 먹는 선수가 없는 것 같다. 옆에서 고기 잘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당연히 2021시즌 목표도 ‘팀’에 맞춰져 있다.

나지완은 “지금 이 나이에 ‘몇 타점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이 이기는 게 우선 목표다. 팀이 이길 수 있는 타점, 홈런 많이 기록하면서 팀에 플러스가 되겠다”며 “우승은 쉽지 않더라도 무조건 5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덩크슛, 들어갈까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피스카티웨이의 러거스 애슬레틱 센터에서 열린 남자대학농구 챔피언십(NCAAM) 시즌 오프닝 경기에서 첫 하프타임에 러거스 스칼렛 나이츠의 론 허퍼가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김민호 코치 LG 트윈스로 자리 옮긴다

이종범·조인성도 LG 코치진 합류

김민호(사진) 코치가 LG 트윈스로 자리를 옮긴다. LG는 26일 새로운 코치진 명단을 발표했다. 류지현 신임 감독과 함께할 새 코치진에 김민호 코치와 함께 이종범, 장재중, 조인성, 김경태 코치가 이름을 올렸다.

2004년 두산에서 주루, 수비코치 등을 경험한 김민호 코치는 2013-2014년 LG를 거쳐 2015년 KIA와 인연을 맺었다. 창의적인 지도로 수비 코치로 명성을 떨친 그는 KIA에서 야수총괄, 수석 코치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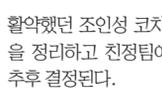
올 시즌 일본 주니치에서 코치 연수를 받은 이종범 코치도 LG 코치로 현장에 복귀한다.

그는 2013년 한화 주루코치를 시작으로 MBC 스포츠+ 해설위원을 거쳐 2019년 LG 퓨처스 총



괄 및 타격코치를 지냈다.

KIA, 롯데 등에 활동했던 장재중 코치도 2004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LG로 복귀한다.



1998년 1차 지명 선수로 입단해 LG에서 활약했던 조인성 코치도 두산에서의 지도자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팀에 합류했다. 이들의 보직은 추후 결정된다.

한국시리즈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한화와 키움에 아직 사령탑 선임을 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코치진 이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로나 여파...NBA 올스타전 22년만에 취소

2020-2021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올스타전이 22년 만에 열리지 않는다.

NBA 사무국은 26일 “2021년 2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스타전을 2024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23일 개막 예정인 NBA 2020-2021시즌의 올스타전이 취소된 것은 역시 코로나19 때문이다.

2022년 올스타전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2023년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대회를 개최하려던 인디애나폴리스시는 2024년 올스타전을 여는 것으로 조정됐다.

1951년 시작된 NBA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은 것은 선수협회의 파업으로 리그 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1999년 이후 이번이 2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올해 NBA 올스타전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2월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펼쳐졌다. /연합뉴스

정규시즌 마무리

K리그2 30일 시상식

17시즌 활약 정조국 공로상

2020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K리그2 시상식이 30일 열린다.

‘하나원큐 K리그2 대상 시상식 2020’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5월 9일 뒤늦게 시작됐던 2020시즌은 지난 21일 정규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에는 경남FC와 대전하나시티즌이 준플레이오프를 치렀고, 29일 승격팀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가 진행됐다.

4위 대전과 1-1 무승부를 이룬 3위 경남이 상위팀 자격으로 승격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수원FC와 ‘1부 티켓’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경기는 29일 오후 3시 시작된다.

이어 30일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열린다. MVP, 감독상,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와 감독이 단상에 오른다.

레안드로(서울이랜드), 백성동(경남), 안병준(수원FC), 이창민(제주)이 MVP 트로피를 다툰다.

제주의 우승을 지휘한 남기일 감독과 김도균(수원FC), 전정준(전남), 정정용(서울이랜드)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K리그2에 처음 신설된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는 전남 하승운과 함께 이동훈(제주), 이상민(서울이랜드), 최건주(안산)가 후보로 각축을 벌인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MVP 후보를 제외한 개인상은 수상자와 구단 필수 인원만 참석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다.

시상식은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아프리카TV, 트위치, 스팟, Seozn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제주 정조국에게 공로상이 전달된다.

은퇴를 준비하는 정조국은 K리그에서 17시즌을 뛰면서 392경기에 나와 121골 29도움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농구 황제’ 조던

골프에서도 ‘흠코스 제왕’

본인 소유 골프장서 연전연승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은 미국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에서 뛴 때 흠코트에서 유난히 강했다. 은퇴한 뒤 골프에 푹 빠져 사는 조던은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 호비사운드에 ‘그로브 23’ 골프장을 만들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인기 스타 리키 파울러(미국)는 최근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조던의 개인용 골프 코스 별명이 ‘23호 도살장’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조던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쳤다가 돈을 탈탈 털리고 간 사람들이 불인 별명이다.

골프에서도 농구 선수 시절 시카고 불스 흠코트 못지않은 조던의 뒷세가 작용한다는 얘기가.

비결은 코스 세팅이다. 파울러는 “조던에게 맞춰 코스를 조성해줬다”면서 “티와 핀 위치는 매일 바뀌는데, 조던의 입맛대로”라고 말했다.

PGA 투어 선수들과 내기 골프를 치면 티박스는 드라이버를 치기 곤란한 위치로 옮겨진다.

대신 조던은 마음 놓고 드라이버를 칠 수 있다. 조던은 모든 파 4홀과 파 5홀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때린다. 비거리가 투어 선수보다 짧은 조던이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불이 떨어지는 지점은 아주 넓지만, 투어 선수가 드라이버를 때리면 페어웨이가 아주 좁거나 벙커가 도사린 곳이다.

파울러는 “더 뒤로 가서 쳐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거리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그는 언제나 오르막 퍼트만 하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도굴
3관	런
4관	이웃사촌
5관	이웃사촌
6관	도굴
9관	프리키 테스트데이
7관 씨네커플	내가 죽던 날, 벋든: 세상을 바꾸는 힘 강덤 오브 해븐: 디렉터스 컷 프린세스 에마: 마법 책의 비밀
8관 씨네커플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로그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